

인간에게 있어서의 건축 What is Architecture to Human Beings?

윤여욱 /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심환경
by Yoon Yeo-Wook

건축이란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너무도 단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무거운 느낌을 주는 질문이다.

어쩌면 무책임하게 답할 수도 있겠으나 건축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선 함부로 답하기 곤란한 어떤 큰 무게를 느끼게 된다. [건축 : 집, 성, 다리 따위를 세움, Building] 현대 국어 대사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新築, 增築, 改築, 再築 또는 移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굳이 어학적 해석과 법적 해석의 이질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두 해석 사이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명확, 명쾌한 설명으로서만 절대적 권위를 지켜가는 사전과 법전의 정의가 상이하다는 것은 역시 ‘건축’이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누군가 ‘건축’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나는 모른다” 이 한마디가 가장 편리한 대답일 것이다. 실상 ‘건축’ 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삼차원 물질을 제외한 추상적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다.

혹자는 지극히 간단한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책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단 ‘건축’ 이외에도 단순한 것일수록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예를들어 “인간”이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흔쾌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간혹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호모 사피엔스’로 시작하여 물 몇 퍼센트, 지방 몇 퍼센트, 단백질 몇 퍼센트 하며 장황하게 인간의 기호와 공식을 늘어놓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듣는 사람은 그의 생물학적 방식은 인정할지 모르나 질문의 핵심을 너무도 빛나간 답변으로 인하여 뒷말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럼 좋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해석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정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당신 곧 당신이라는 존재, ‘You의 정의는 무엇이나는 말입니다.’ 당돌하긴 하나 이렇게까지 질문을 받는다면 누구든 선뜻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를 명쾌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동서고금의 현인들이 ‘자기자신을 알라’고 외쳐 온 것만 보아도 어려운 질문임을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 귀한 것과 하찮은 것의 가치기준이 前後無順으로 해석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예컨대 현재 이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가끔이나마 대할 수 있는 물질 중 같은 질량의 단위로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물질들은 어떤 것들일까? 아마도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 볼때 다이아몬드 같은 귀금속류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 다이아몬드에는 왜 그토록 높은 가치가 매겨져 있을까? 인류의 생존에 없어서 안 될 절대 필요의 광물이어서일까?

물론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고강도 광물의 커팅이나 세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비싼 것인가?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무생산적인 장식용 다이아몬드가 그나마 광물 커팅 예라도 사용되는 공업용 다이아몬드에 비하여 오히려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이아몬드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보석의 가치는 그 ‘稀少性과 아름다움’에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귀하고, 강도가 높고 또한 빛의 굴절률도 가장 커 아름다운 빛을 발함으로 해서 다이아몬드가 보석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다. 역시 다이아몬드는 높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는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맹점은 없는가? 그토록 귀중한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진정 소중한 것들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지구, 우리가 마시며 사는 물 등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거의 무료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생존에 없어서 안되는 것들은 모두 거저 주어진 것들인 것이다.

그 흔한 것 중 하나만 없어도 하나만 잘못 되어도 인류는 소리없이 멸망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가치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선 건축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다. '건축'의 가치가 소용되는 곳을 대략적으로 분류해 보면 첫째, 인간의 주거 내지는 활동공간으로서의 일반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다.

둘째, 인공구조물로서 인간의 시각과 접촉, 느낌 등으로 감지되어지는 특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의 가치라 함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건물을 바라보았을 때 -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관계되는 건물은 아니지만 - 무의미할지라도 은연중에 좋다 나쁘다, 자연이나 주위와의 조화가 잘된다 아니다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좋은 느낌을 주는 건물은 예술성을 논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도시의 미관이라는 것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

셋째, 건축에는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고고학자들이 유적의 발굴에 힘쓰는 것은 그것이 가장 확실한 역사의 증빙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축은 과연 예술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모든 예술품은 그 작품의 이름과 특히 작가를 매우 중시한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밀레의 만종,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베토벤의 운명, 스피버그의 E.T, 쥘리안 공원이 라고 이야기 하지만 건축에 이르러서는 아무개의 무슨 빌딩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것으로 볼 때 건축은 우선적으로는 순수 예술과는 분명히 그 길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1. 건축작업 과정의 공동, 협동성
2. 예적보다는 상적 가치의 우선 추구
3. 설계자 자신의 개성 부재

그렇다면 건축은 예술이 아니라는 결론인가?

허나 그렇게만 단정할 수는 없다. 예술의 작품이란 대중들에게 평가되기 마련이고 건축 또한 여기서 예외가 될 순 없기 때문이다. 대중의 평가란 인간이 건축을 대하며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지루함이나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어떤 건물이나 도시를 접하여 언제나 안락하고 평화스러운 즐거움과 감동을 맛 볼 수 있다면 그 건물과 거리는 이미 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사람이 불특정 건물이나 거리를 대할 때 은연중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건축의 예술적 속성을 망각한 사고에 의해 저질러진 인간감성에 대한 만행인 것이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다.

물론 나쁜 결과가 나왔다면 기본계획을 주도한 쪽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것이 설계의 잘못에 의한 몫이나 시공의 몫이나 행정상의 문제나를 따지기 앞서 일반적으로 상적 가치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온 우리네 지난날에 대하여 일말의 반성을 해야 할 시기가 성숙되었다고 생각한다. 건축에 있어서 안전도와 상적가치는 그 가치의 전부라고 할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 건물의 예술적 가치가 바로 상적가치를 재는 척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난날 '거실은 여기, 안방은 이쪽' 하는 식의 1더하기 1은 오직 2뿐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갈등하고 있을 뿐이다.

누군가의 과감한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모두 다같이 구태를 벗고 창조적 사고를 위해 달린다면 더없이 반가운 일이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누구라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이 이야기, 전혀 새롭지도 않으며 조석으로 듣기 싫을 만큼 들어온 따분한 이야기이다. 누구나 알고 느끼고 있는 이야기이다. 또 실행코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앞에 부닥치면 결국 실행치 못함에 자탄하며 애써 외면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만물의 창조에는 그 시작이 분명히 존재한다.

창조는 실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시대의 첨단을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면 두가지 중 하나로, 천재로 추앙받든가 아니면 정신병자로 취급되어질 것이다.

정신병자 취급이 두려워 정체 속에 안주할 것인가? 한 번 도전해 볼만한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

이제 세상도 많이 변하여 광적 발상도 조심스럽게 인정받는 세월이 도래했지 않은가?

건축은 예술성 이외에도 편의성, 안전성 등 많은 인자를 내포해야하므로 상대적으로 예술과는 소원하게 인식되거나 그 예술적 가치가 소홀히 다루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건축이야말로 인간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감성을 좌우하는 것이기에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예술은 건축'이라고 감히 정의내려 보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돌맹이 하나라도 건축의 일부분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은 이미 예사 돌맹이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이제 돌맹이 하나에도 생명의 소망이 숨쉬고 있음을 본받아 인간생명과 건축생명의 동질을 찾아 끝없는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